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혁명 이후

러시아 성매매 정책의 변화:

질병담론에서 노동담론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장한녕

# 국문초록

본고는 1917년 혁명 전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성매매 정책의 변화가 질병담론에서 노동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1843년 러시아 제국은 성병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주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성판매 여성을 등록하여 주기적인 성병 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나 질병통제에 실패했다. 1917년 두 차례의 혁명으로 수립된 볼셰비키 정권은 규제폐지주의 기조 하에 비범죄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탈성매매 지원 기구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비범죄화 법령은 성판매자의 강제노동과 성구매자의 처벌 등의 실제와 괴리를 일으켰고, 탈성매매 기구 역시 자원부족과 성판매 여성의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스탈린의 집권 이후 성판매자의 사회복귀에 목표를 둔 탈성매매 기구는 폐지되었으며 성판매 여성은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기존 연구는 성매매 정책의 변화를 체제의 성격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제국의 규제주의 제도는 혁명에 의해 폐지되었고, 혁명의 역동성이 유지되던 1920년대에는 성판매 여성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이 유지되었다. 스탈린의 집권은 전통적 가족제도를 다시 불러들였으며 따라서 성매매 정책 역시 억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성매매 문제의 복잡한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전시공산주의 시기 볼셰비키는 성판매자 여성을 노동이탈자로 간주하였으며, 1920년대 말까지 당 활동가들은 성매매에 대해 도덕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이 다면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성매매 정책의 골자인 공공보건의 증진은 의사들로부터, 규제폐지주의는 제국 말 여성주의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의 새로운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것은 곧 모든 시민이 성별과 계급에 무관하게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성판매 여성들 역시 소비에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전시공산주의 시기와 신경제정책 시기에 성판매 정책의 성격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성판매는 노동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관점이 존재했다. 높은 여성 실업률이 성판매 정책의 억압적 성격을 약화시켰던 1920년대에 수립된 노동교화소는 이점을 잘 보여준다. 노동교화소는 성병치료소에서 출발하였으나 치료, 교육과 노동 훈련을 통해 성판매 여성을 소비에트 여성 시민으로 개조하려는 기획으로 나아갔다. 이 기구에서도 정책 결정자들과 실무자들은 성판매를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성판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조직 원리인 노동을 가르치고자 했다. 노동교화소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전업 성판매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었다. 불세비키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새로운 통치원리에 의해 사회 전반에 도입된 보편적 위생 교육과 보건 정책은 성병을 완만하게 정복해 나갔다. 탈성판매 기구와 여성 고용 증진은 자원 부족과 실업난의 장벽에 부딪혔다. 여성인구 전반의 실업, 더 나아가 빈곤 문제 해결은 산업화 드라이브 이후에나 해결될 문제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력의 고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5개년 계획의 시대에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은 다시 한 번 억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다. 본고는 이런 변화를 정권의 성격 변화보다 성판매에 대한 일관된 태도 탓으로 해석한다. 소비에트 당국에게 성판매는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다. 드디어 성병과 분리된 성판매 문제는 여성노동과 노동시장이 맺는 관계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주요어:** 성판매, 보건정책, 규제폐지주의, 생산적 노동, 노동교화소, 신경제정책

**학번:** 2009-20056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러시아 제국의 성매매 정책 .....	7
1. 규제체제의 도입과 변화 .....	7
2. 규제의 문제점 .....	10
3.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 .....	12
4. 1910년 여성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 .....	15
III.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 .....	20
1. 혁명 이전의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책 .....	20
2. 새로운 성매매 정책의 수립 .....	22
3. 노동교화소 .....	30
IV. 결론 .....	40
참고문헌 .....	44
Abstract .....	49

# I. 서론

성매매<sup>1)</sup>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법은 시대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했다. 성매매는 결국 사라져야 하는 악습인지, 사회 제도와 관습의 정상적인 일부 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부터 참여한 갈등이 있어왔다. 더 나아가 현존하는 성매매를 누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특히 국가가 성매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었다.<sup>2)</sup> 역사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수단이 각축을 벌여온 이 영역에서 1917년 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러시아의 제도 및 담론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급격한 와해와 재건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계급과 성의 평등을 주장했던 볼셰비키가 새로운 국가의 수립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제정 말에 도입된 규제주의 정책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착취로 여겼던 볼셰비키에 의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볼셰비키가 그렸던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 제도와 여성 노동에 대한 청사진의 영향 아래 전개되었다.

1917년 전까지 성매매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긴급한 현안이라기보다

- 
- 1) 각종 성행위를 사고파는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매매를 prostitution에 대응하는 말로 사용할 것이다. 매음, 매춘, 윤락 등의 용어는 도덕적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성판매자, 성판매 여성으로 표기할 것이며,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으로 표기할 것이다.
  - 2) 성매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금지주의(prohibitionism)는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전통적 성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규제주의(regulamentarism)는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한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규제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흐름이 등장하였고, 이를 폐지주의(abolitionism)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금지주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규제폐지주의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로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규제폐지주의 혹은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쌍방을 처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관계자를 착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2004), 14-24쪽.

는 차르체제와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하는 명분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그들의 앞에는 차르정부의 규제주의 정책에 의해 별도의 신분집단을 형성한 전업 성판매자와 부족한 임금을 메꾸기 위해 성판매를 부업으로 선택하곤 했던 도시 하층계급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명 이전에는 누구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에 볼셰비키는 답해야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매매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완전 고용과 성평등이 달성된다면 성매매는 사멸할 것인가? 그렇다면 완전 고용과 성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기와 성별 간 차별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 중에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여성 실업과 성차별의 피해자인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방해하는 범죄자인가?

볼셰비키는 성매매를 여성 노동자에게 특히 가혹한 자본주의 체제와 남성의 방탕한 생활을 용인하는 부르주아 가족제도가 중첩된 결과로 보았고, 따라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가족제도와 식량이 부족한 도시, 기차역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남성도 여성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러시아에서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었다.<sup>3)</sup>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성을 판매하는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새로운 원칙의 수립과 정에서 계몽되거나, 처벌되거나, 배제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의 성별관계와 도덕, 질서를 정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사회기반까지 닿은 혼란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정권의 결합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밑바닥부터 재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신경제정책 시기에 분출되었던 일상생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소비에트 시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과정이었다.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결혼제도나 성풍습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 시기의 다양한

---

3) 한정숙,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가족, 출산 정책: 현실과 논의들」, 『서양사연구』, 제 23집(2010), 44-45쪽.

논의와 실험은 러시아 혁명의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요소가 분출하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노선을 취한 스탈린 시대는 일상생활에도 실험과 탐색이 중단되고 가족제도와 성풍습 또한 전통적 가치로 회귀한 시기로 평가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소비에트 러시아 여성사 연구는 소위 ‘대후퇴’ 서사를 답습해왔다.<sup>4)</sup> 혁명으로부터 ‘좋은 시절’이었던 신경제정책 시대까지 유지되는 여성 해방의 기조가 스탈린의 ‘반동’에 의해 꺾였다는 것이다. ‘대후퇴’에 대한 반론을 전개한 수정주의 학파의 등장 이후로도 이러한 논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여성 정책을 주도했던 공산당 여성국이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폐지되고 주요 여성 볼셰비키가 다수 숙청되었다는 사실이 기존의 설명 방식을 뒷받침했다. 골드만은 스탈린 집권 이후 정상 가족이 강조되고 이혼이 어려워졌으며, 낙태가 금지되는 등 사회 정책의 급진성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sup>5)</sup> 우드는 내전과 전시공산주의의 시기에 볼셰비키 정권이 여성을 동원하기 위해 여성대중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도입했고, 이것이 신경제정책 시기에 여성국 주도하에 시도되다가 스탈린 시기에 퇴조했다고 설명한다.<sup>6)</sup>

소비에트 러시아 여성사 연구의 한 부문으로서 성매매 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성매매 정책과 성판매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규제폐지주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결국 볼셰비키 내의 여성주의자 집단이 성매매 규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도입하려 했고, 신경제정책 시기에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30년대에 숙청당하면서 실패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성 실업률에 따라 성판매자에 대한 담론이 희생자와 범죄자 사이를 오간

---

4) Frances Lee Bernstein, *Dictatorship of sex* (Dekalb: Northern Illinois Press, 2007), p. 5.

5) Wendy Goldman, *Women, The State and Revolution: Soviet Family Policy and social life, 1917~1936* (Cambridge: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6) Elizabeth Woods, *Baba and Comra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p. 3-6.



다고 분석한 워터스 역시 30년대 성판매자에 대한 억압적 조치가 가부장적 여성관의 산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워터스는 30년대 이후 소비에트 사회에서 성담론의 발달이 억압되었고, 중단된 담론의 발전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나 다시 전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sup> 즉, 기존의 여성사 연구는 혁명 이전 시기와 혁명 후 1920년대 말까지의 시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라는 세 시기를 단절적으로 파악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비에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성매매 규제 정책 도입 이후 줄곧 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의사들이 조명되고 있다. 프랜시스 리 번스틴은 소비에트의 의사들이 대중 보건 프로그램으로서 ‘성계몽’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남성과 여성 시민에게 성행위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스탈린 시대 이후 공적 담론에서 성담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1920년대의 활발한 성담론 전개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의사들이 1920년대에 형성된 정상적인 성에 대한 합의를 실천해 나갔다는 것이다.<sup>8)</sup> 이 정상적인 성은 스탈린 시대에 강조되었던 전통적 가족 모델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시기에 의사들이 실행했던 성매매 정책은 이들이 제정 시기부터 탐색해온 해결책의 실현이었다. 그렇다면 성매매 정책의 성격이 각 시기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시각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면서 러시아 혁명 이후의 성매매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르정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규제폐지주의 운동은 차르정부 말기에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스타이츠가 여성인권운동의 전개를 서술하면서 여성운동이 시작된 제정 말부터 공산당 여성국이 폐지된 스탈린 시기까지를 하나의 단계로 다룬 바 있다.<sup>9)</sup> 그러나 이후 여성사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제정과 소비에트의 구

---

7) Elizabeth Waters, “Victim or Villain: prostitution in post-revolutionary Russia,” in *Women and Society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ed. Linda Harriet Edmon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73-174.

8) Frances Lee Bernstein, *Dictatorship of Sex*, pp. 3-6.

9) Richard Stites,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Russia: Feminism, Nihilism, and Bolshevism 1860~193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분을 따르고 있다. 이런 구분은 성매매 정책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0)</sup> 문제는 이런 구분이 불세비키가 정책 기조로 삼았던 규제폐지주의가 애초에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대두했고, 규제폐지주의의 지지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이다.

제정기의 연구는 규제주의 정책의 도입과정과 함께 당대 성판매자의 사회적 지위가 규제 정책의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1)</sup> 이 시기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번스틴은 규제정책을 개혁하려 했던 의사들과 규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주의자들의 시도까지 다룬다.<sup>12)</sup> 제정 시대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규제주의 정책이 차르 정부의 비타협성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제정의 규제주의 정책은 혁명에 의해서만 소멸할 수 있었다.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뒤 이은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규제폐지주의는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사들과는 달리 규제폐지주의를 주장한 여성주의자들은 대부분 소비에트 러시아의 형성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규제폐지주의의 기조를 이어간 것은 불세비키였고, 불세비키와 여성운동가들 사이에는 성매매 해결책이나 여성 해방 뿐만 아니라 사회혁명

---

pp. xviii-xix.

10) 제정기의 성매매를 다룬 연구로는 Richard Stites, "Prostitution and Society in Pre-revolutionary Russia", *Geschichte Osteuropas* 31, No.3(Jan, 1983), pp. 348-364; Barbara Alpen Engel, "St. Petersburg prostitut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Personal and Social Profile", *The Russian Review* 48, No. 1(Jan, 1989), pp 21-44; Laura Engelstein, *The Keys to Happiness: Sex and the Search for Modernity in Fin-de-Siècle Rus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rostitutes and Their Regulation in Imperial Russia*,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가 있다. 국내연구로는 기계형, 「제정러시아 말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빈민층 여성과 성매매」, 『여성과 역사』, 제 20집(2014), 63-96쪽 참고.

11)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와중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로 여성노동력이 다수 유입되었다. 규제정책에 의해 등록된 성판매자 여성의 기록을 살펴보면 도시로 유입된 농민 출신 도시하층계급 여성들이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일시적인 부업으로 성매매에 의존하곤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 하층계급 여성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은 일시적 부업이었던 성판매가 빠져나갈 수 없는 전일제 직업이자 사회적 신분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Barbara Alpen Engel, "St. Petersburg prostitut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pp. 21-23.

12)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전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볼셰비키는 규제폐지주의를 어떤 형태로 완성하였는가? 차르정부 말의 여성주의자와 볼셰비키의 정책 사이에 어떤 연속성과 변별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제정 말 폐지주의자와 의사들이 제시한 성매매 대응책이 볼셰비키의 정책으로 채택되어가는 과정을 볼셰비키의 여성해방론이 규제폐지주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조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성병 방지 정책, 곧 성판매 여성(prostitute) 규제 정책과 혁명 이후 규제 폐지 및 성판매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 과정을 연속적인 현상으로 다룬다. 따라서 먼저 2장에서는 제정기의 규제주의 정책의 도입과 규제가 일으킨 문제를 확인한 뒤 의사와 폐지주의자들 각각의 개혁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제정 러시아는 성매매를 성병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특히 여성 판매자를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의사들과 여성주의자들은 각각 1897년과 1910년 대회를 통해 규제주의 정책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볼셰비키 정권의 수립 이후 제정 말기의 개혁안이 변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917년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은 성판매 여성의 등록, 규제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사회적 해결책'을 성매매의 해결책으로 내놓는 한편, 의사들이 요구해왔던 인구 전반에 대한 보건교육과 광범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성병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볼셰비키는 성판매 여성에게 억압과 온정의 사이를 오가는 분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글에서는 볼셰비키가 줄곧 성매매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생산적 노동'이 그들의 성매매 정책의 기저에 있었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 II. 러시아 제국의 성매매 정책

러시아 제국의 성매매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금지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정교회는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이는 차르 정부가 성매매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를 결정했다. 1917년 혁명까지 성매매는 원칙적으로는 범죄였고, 대체로 묵인되고 있었다. 표트르 대제가 근대적 군대를 도입하면서, 성매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초기에는 병영 근처의 성판매자를 단속하는 데 그치던 금지주의 법률들은 매독의 확산으로 보다 정교한 대응책으로 바뀌어야 했다. 군대 뿐만 아니라 제정러시아 전체에 걸쳐 규제주의 감시체제가 자리 잡은 것은 이 때문이다.

### 1. 규제체제의 도입과 변화

1843년 10월, 차르 니콜라이 1세의 내무상 레프 페로브스키(Лев Перовский)가 성매매 규제정책을 러시아 제국에 도입했다. 1718년 표트르 대제가 군부대 근처의 성판매자를 단속하기 시작한 이후 원칙적인 금지주의를 견지하던 제정의 방침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sup>13)</sup> 새로운 제도는 보건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성매매에 접근한 프랑스의 풍속경찰제도(police des moeurs)나 영국의 전염병방지법(Contagious Disease Act)과 궤를 함

---

13) 1716년 표트르 대제는 “부대에 창녀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1718년에는 페테르부르크의 “선술집, 도박장, 및 기타 외설적인 장소”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때의 금지주의적 조치는 미풍양속과 도덕에 어긋나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예카테리나 여제의 시대에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조치에 성병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카테리나는 “인류의 파괴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막기 위해 “외설적인 행위를 위해 낮 혹은 밤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거나 건물을 대여하는 행위, 외설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낮 혹은 밤에 집에 들어가는 행위,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파벨 1세는 1800년 “음주, 외설, 방탕에 빠진” 여성을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이 시기에 성판매자 여성이 노란 옷을 입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고도 알려진다.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13-15.

게 하는 규제주의 정책이었다.<sup>14)</sup> 내무성 의학부의 주도 아래, 성판매자의 등록 및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성병 검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1843년 내무성 의학부 휘하에 의사-경찰위원회(врачебно-полицейский комитет)가 수립된다. 이 기구는 제정이 폐지될 때까지 러시아 제국의 성판매자를 통제했다. 번스틴은 1844년 페테르부르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851년 전국 각 지역의 위원회가 실행한 규제の内容을 식별(Identification), 감시(Inspection), 격리(Incarceration)로 요약한다.<sup>15)</sup> 의사경찰위원회는 성판매자를 색출해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들의 성병 감염 여부를 판단한 뒤 여부에 따라 격리 수용하고자 했다. 1~2주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검진 결과는 등록된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노란 딱지"에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등록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검진을 받은 도시도 기록되어 있었다. 질병의 매개자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체제가 성판매자 여성을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는 집단으로 만든 것이다.<sup>16)</sup>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금지정책과 달리 성판매자를 보호하는 측면 역시 가지고 있었다. 검진비용은 물론이고, 병을 자진 신고했을 때의 치료비도 국가의 책임이었다. 포주에 대한 규제는 '노동' 강도나 위생, 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포주는 고용한 성판매자의 감염을 신고하지 않을 경

---

14) 영국의 규제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Judith Walkowitz,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 Women, Class and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hilippa Levina, *Prostitution, race, and Politics: policing venereal disease in the British Empire*, (Routledge: 2003)를, 국내 논문으로는 이성숙, 「'움직이는 페미니스트 군단'-영국 성병방지법 폐지운동가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 1869~1886-」, 『영국연구』, 제 4호(2000), 55-82쪽; 이성숙, 「영국 빅토리아시대 성병방지법과 매춘여성」, 『서양사론』, 제 69호(2001), 67-97쪽; 이성숙, 「오리엔탈리즘과 영국 페미니즘-조세핀 버틀러의 인도 캠페인을 중심으로」, 참조. 프랑스의 규제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Jill Harsin, *Policing prostitution in nineteenth-century Paris*, (Princeton University Press:1985)를, 국내 논문으로 변기찬, 「19세기 프랑스 매춘 규제 운동의 모순과 그 한계」, 『外大論叢』, 제 28호(2004), 643-660쪽; 은은기, 「프랑스 매춘부 규제정책과 리용 매춘부들의 저항운동」, 『대구사학』, 제 95호(2009), 263-283쪽 참조.

15)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20.

16) 위의 책, 20-24쪽.

우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칼리킨 병원에 감염된 여성들이 수용되었다.<sup>17)</sup> 1857년 창설된 '자비의 집'은 공식적인 기관은 아니었지만, 차르 가족의 후원 아래 성매매의 예방 및 탈성매매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sup>18)</sup>

1861년 농노해방령 이후 신분제의 변화는 규제주의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명백한 차이는 "노란 딱지"의 기능이었다. 성판매자로 등록된 여성은 신분증명서를 더 이상 소지할 수 없었으며, 대신 "노란 딱지"로 신분증명을 해야 했다. 성병검진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탈바꿈한 것이다. 등록자는 이동, 주거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직업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부랑자와 도시에 새롭게 유입되는 여성들에 대해 성매매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가정교사부터 하녀, 계절노동자를 아울러 도시 하층계급의 여성 전체였다. 전업 성판매자를 통제하면서 도시하층계급 여성 모두를 잠재적인 성판매자로 간주하는 감시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sup>19)</sup>

규제정책의 핵심은 매춘업소였다. 성병 검진과 치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가장 쉬운 영업형태였기 때문이다. 규제 입안자들은 여러 유형의 성매매 중 관리 통제가 쉬운 매춘업소를 선호했다.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성판매자들은 대개 일종의 부업으로 성매매 시장에 들어왔고, 등록에 부과되는 낙인을 기피했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와 검거 활동을 통해서도 소수만이 파악되었고, 따라서 이들을 매개로 퍼져나가는 성병을 통제하는 일 역시 불가능했다. 이에 비해 매춘업소는 사업주와 영업장의 소재가 분명하고, 이들을 통해 성판매자 여성을 통제하는 일 역시 쉬웠다. 페로브스키가 차르 및 다수 관료들의 거부감을 무릅쓰고 매춘업소에 허가를 내주었던 것은 매춘업소를 통해 퍼져나가는 성병은 근절할 수 있다는 낙관 탓이었다.<sup>20)</sup>

---

17) 위의 책, 191-202쪽.

18) 위의 책, 20쪽.

19) 위의 책, 28-29쪽.

20) 위의 책, 145-146쪽.

## 2. 규제 의 문제점

그러나 질병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 당대의 성병 중 가장 두려운 질병은 매독이었다. 매독은 감염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악화되고, 각각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상이하며 단계 사이에는 잠복기가 있다. 잠복기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고, 전염력은 잠복기를 포함하여 3기에 이를 때까지 높은 수준이다. 매독의 원인에 대해서 온갖 가설이 난립하고 매독에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 것은 어느 정도는 병의 특징 탓이기도 했다. 의사들이 매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감염 경로를 확정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과 의학의 발전이 필요했던 것이다.<sup>21)</sup>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1905년 매독 균이 발견되고 1906년 혈액검사로 매독을 진단하는 바세르만 진단법이 발명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매독의 진단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의학이 매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sup>22)</sup>

19세기에 규제주의 기초가 유럽 전반에 걸쳐 도입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정책 결정자들은 군대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도시 위생과 공공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독의 전염을 통제해야만 했다.<sup>23)</sup> 그러나 매독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한 매독 환자는 스스로 의사를 찾아오지 않았다. 도시 하층계급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레토릭은 국가와 의사의 감시에서 질병을 감출 수 없는 집단이 도시하층계급이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규제 정책의 강제적 감시와 격리에 노출된 집단이 성판매자였던 것이다. 러시아 보건 당국과 의사들은 성판매자 여성을 매독 감염의 핵심 고리로 파악하고 이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대중적으

---

21) Laura Engelstein, *The Keys to Happiness*, pp. 170-174; Laura Engelstein, "Syphilis, Historical and Actual: Cultural Geography of a Disease", *Reviews of Infection Diseases* 8, No. 6(Nov. -Dec., 1986), pp. 1036-1038; 헨리 지거리스트, 황상익 역, 『문명과 질병』, (파주: 한길사, 2008), 146-152쪽.

22) 매독은 2차 대전 중 개발된 페니실린이 보급되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 1910년 개발된 매독치료제 살바르산606 역시 매독의 정복에 기여했다. 헨리 지거리스트, 『문명과 질병』, 151-152쪽.

23) Richard Stites, "Prostitution and Society in Pre-revolutionary Russia", p. 349.

로 보급된 치료법도 없는 데다 감염 자체가 추문인 질병에 대적할, 단 하나  
뿐인 실행 가능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환자 중 일부를 목표로 하는 감시  
체계는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만약 격리되었던 여성이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성판매를 시작했을 때 이 여성을 다시 감염시킬 남성  
고객은 보건 당국의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남성의 규제를 시도했지만,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sup>24)</sup> 성병에 감  
염된 여성 중 전업 성판매자 일부만이 규제체제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서  
진단을 통해 병원에 격리되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치료되어 매춘업소  
로 돌아갔으며, 이들 중 거의 모두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감염된 남성  
고객에게서 재감염 되었다. 이런 제도 아래서 질병은 통제될 수 없었다. 사  
실상 규제체제는 본래의 목적에서 실패한 것이다. 하층계급에 대한 공포와  
성판매자 여성에게만 질병의 원인을 돌리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서 이 목표  
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질병 통제에 실패한 규제체제는 제정을 비판하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성판매자의 인권 침해를 결코 넘어졌고, 여성주의자  
들은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는 제도에서 이중규범을 읽어냈다.<sup>25)</sup> 게다가 규  
제는 성매매를 고착시키고 있었다. 규제는 성판매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직  
업으로 만들었고, 미등록 성판매자를 추적해 강제로 등록시켰다. 규제 도입  
이전과는 달리 성판매자는 법적 지위였고 이는 탈 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었  
다. 규제체제는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의도를 내포하지 않았지만, 성병과 성  
매매가 동일시되는 와중에 성매매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으  
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부패와 잘못 등록되어 스캔들에 휘말린 ‘선  
량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언론에 실렸다. 1892년 당사자 의사에 반  
하는 등록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실효는 없었다.<sup>26)</sup>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체제를 개선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

24)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23-24.

25) Richard Stites, "Prostitution and Society in Pre-revolutionary Russia", p. 357.

26)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33-35.



나타났다. 첫 번째는 규제 개혁으로, 규제체제가 질병 확산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 체제의 문제점을 규제의 강화나 완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였다.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은 성병의 권위자이자 규제 지지자인 베냐민 미하일로비치 타르노프스키(Вениамин Михайлович Тарновский)이며, 그는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두 번째는 폐지주의로, 규제체제가 질병확산을 막는 데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매매를 확산시킨다고 여겨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흐름이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여성 의사이자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였던 마리아 이바노브나 포크롭스카야(Мария Ивановна Покровская)로 그녀는 1910년 여성 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에서 폐지주의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정 말 자유주의적 정치 개혁은 두 가지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

### 3.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는 기존 규제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이 학술대회는 내무성의 지원 아래 개혁적인 관료와 국가에 고용된 의사들을 주축으로 쟁스트보, 군대, 공장 등 규제 체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전문가들이 매독을 해결할 수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회의 주제는 매독이었지만, 참가자들에게 매독에 대응하는 수단은 성매매 규제정책이었다. 이 대회의 기조와 결의안은 제정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참가자들 역시 계속해서 규제정책을 뒷받침했다.

대회 참가자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의사들은 규제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짚고 있었다. 첫째는 질병 통제의 효율이 낮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규제가 제한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었다. 이 시기에 이 둘 모두를 해결할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의학의 발달 수준과 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은 규제제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성병을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규제는 점점 더 성판매

자들에게 가혹해졌고, 제정은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당성에 타격을 받고 있었다. 의사들 간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어느 쪽도 구미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다. 보수적인 의사들은 규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차르정부가 성매매를 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방어하고자 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는 쟈스트보 소속 의사들은 규제체제의 기본권 침해를 비판했지만, 이들이 누리는 국가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규제체제가 보장해 주고 있었다.<sup>27)</sup>

어쨌든 쟈스트보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쟈스트보에 고용되어 러시아 농촌의 촌락에서 일하던 의사들로 상대적으로 중앙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대회 참가자 중 쟈스트보 의사는 42명이었는데, 알렉산드르 2세 치하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며 차르의 암살 이후의 반동을 경험한 세대였다. 유럽 의학을 공부해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 의사들은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있으면서도 자율성을 지키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쟈스트보 의사들은 농촌에서 진료하면서 농민들과 자주 접촉했고, 농민과 농촌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했다. 서구학문을 배운 자유주의자로서 의사들은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대로서는 농촌의 전통적 가치나 도덕이 붕괴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매독의 원인은 전통적 규범을 지키는 개인들의 탓이라기보다 사회와 제도의 문제여야 했다. 따라서 매독은 러시아 농촌의 보건 의식의 결여와 차르 정부의 낙후된 의료 체계가 결합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sup>28)</sup>

의사들은 분명한 대책 없이 규제를 폐지할 때 통제되지 않은 질병이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공포 역시 공유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의사들이 좀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성의학의 권위자들, 도시의 병원이나 대학에서 경력을 쌓은 의사들이 여기 속했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여성이 성판매자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

---

27) 위의 책, 246쪽.

28) Engelstein, *The Keys to Happiness*, pp. 174-177.

으로는 그녀가 타고난 성향이 병적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희생자가 아니며, 오히려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성판매자에게 질병을 감염당하는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결국 애초에 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즉 이상성애자인 성판매자는 국가와 전문가의 규제와 통제 아래 있어야 했다.<sup>29)</sup> 대회에서 타르노프스키가 했던 기조연설은 의사들의 두려움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는 성병은 언제나 도시 성판매자의 뒤를 따라 오며, 성병 감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판매자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판매자는 강력하게 규제해야만 했다. 이들을 방치하면 러시아 인은 시베리아나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절멸될 것이었다.<sup>30)</sup>

젼스트보 의사건 보수적인 의사건, 의사들은 성판매자만을 통제해서는 질병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질병의 전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가 전체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결국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성병을 포함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없었다. 만연한 성병은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공공보건제도와 병원 및 의료 설비가 확충되고 나서야 수그러들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제정 러시아에서는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sup>31)</sup>

양측의 입장이 만나는 점은 지방정부로의 규제 권한 이전이었다. 의사와 병원은 수도에서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열악한 상황에서 검진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청결도 보장되지 않았다. 검진은 규정된 빈도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수도에서도 열악한 상황은 지역에서는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예산과 인력이 필요했다. 지방 젼스트보에게 규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젼스트보 의사들은 스스로가 보다 인간적인 규제를 주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선출된 두마와 젼스트보에 규제통제권이 넘어가고 나면 의사들은 이 두 기관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었다.<sup>32)</sup>

---

29) 위의 책, 134-137쪽.

30)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234-235.

31) 위의 책, 166-170쪽, 239쪽.

32) 위의 책, 242-246쪽.

내무부는 대회의 결의안을 각 지역정부에 배포하고, 이 내용을 기초로 규제 개혁을 구체화할 위원회를 수립했다. 위원회는 포주와 성판매자 사이의 강제적 부채와 성판매자에게서 제 3자가 이윤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미성년, 임신부 성판매자 보호소와 탈성매매 재활원을 수립하도록 정해 여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지역정부로의 규제 권한 이전은 대회의 권고에 비해 약화되었는데, 내무성의 권한을 우선하되 지역정부와 협의기구를 두어 경찰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 대신 지역정부는 규제 예산 부족분을 지역예산에서 충당해야 했다.<sup>33)</sup>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내무성의 반응은 1903년 내무성 의료부의 “회람 1611”이었다. 이는 대회의 개혁안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다. 내무성은 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성병을 ‘일으키는’ 성판매자를 의사-경찰 위원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위원회의 규제 개혁안은 일부 받아들여져 식별 감시 과정의 가혹행위를 규제하고, 의사-경찰 위원회에 탈성매매를 지원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매춘업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성판매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두마, 쟈스트보로의 권한 이전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제국 전체에 균등하게 미치지 않았고 많은 지역에서 규제는 해당 지역의 경찰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내무성은 내무성 소속의 경찰이 아니라 쟈스트보의 의사에게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러일전쟁으로 성병통제 압박이 강화된 시기에도 내무성은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sup>34)</sup>

#### 4. 1910년 여성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

러시아에서 폐지주의의 대두는 규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영향을 받

---

33) 위의 책, 250-251쪽.

34) 위의 책, 260쪽.

았다. 영국의 전염병법 폐지운동의 성공과 뒤 이은 국제적 폐지주의 운동의 전개는 러시아의 폐지주의 운동에 동기와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 1905년 혁명 이후 확장된 공적 영역은 개혁성향 의사들과 여성운동가들에게 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여성 단체들은 1910년 여성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를 개최해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폐지주의 운동은 제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1차 대전과 혁명을 기다려야 했다.

러시아어로 규제폐지(отмена)는 농노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국제적 규제폐지주의 운동이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개념과 용어를 차용해 온 것과 동일한 맥락인 셈이다.<sup>35)</sup> 규제체제 하에서 성판매자 여성의 처지가 농노와 다를 것이 없으며 농노제가 폐지되었듯 농노제의 잔여물인 규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레토릭인 것이다. 이는 1905년의 제1차 전러시아여성평등권대회의 결의안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성판매자 규제는 곧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이며, 여성의 노예화이므로 폐지해야 한다.<sup>36)</sup>

5년 뒤인 1910년, 러시아여성보호협회(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защиты женщин)의 주도하에 여성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가 열렸다. 러시아여성보호협회는 1899년 런던 백인노예제 철폐 대회 러시아 참가단의 제안으로 수립된 단체였다. 이 단체는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의 각종 여성단체와 자선단체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특히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중앙 관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최상위층 귀족 여성에서부터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까지 아우르고 있었다. 도덕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성매매 문제에 접근했던 기존의 자선단체와는

---

35) 이성숙, 「‘움직이는 페미니스트 군단’-영국 성병방지법 폐지운동가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 1869~1886-」, 55-82쪽

36) Н. Миревич, Из истории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1908), с. 8.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 273에서 재인용.

달리, 협회는 도시하층계급 여성의 사회적 조건과 성매매 유입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국제적 규제폐지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러시아 내에서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협회는 도시하층계급 여성의 처지와 성매매 유입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sup>37)</sup>

그러나 이들은 도시하층계급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하층계급 여성의 평균 임금은 생활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이는 여성 노동자가 주로 낮은 임금을 주는 비숙련 직종에 집중된 탓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상승과 함께 여성 교육의 확대와 성별 분업 구조의 개선 등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필요했다. 정치적인 부담 탓에 협회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심지어 협회는 조직 내에 팽배한 반 규제 정서에도 불구하고 규제폐지주의를 내세우지 못했다. 규제정책은 어쨌든 차르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이다. 협회가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노력은 결국 성판매자 개인의 도덕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성과는 미미했다.<sup>38)</sup>

이런 상황에서 열린 1910년 대회에서 규제폐지주의를 결의하게 된 것은 전문직 여성이었던 여성주의자들의 강경한 폐지주의 기조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293명의 대회 참가자 중 58명으로 다수도 아니었고, 심지어 일관된 강령 아래 조직된 집단조차 아니었다.<sup>39)</sup>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규제가 질병 통제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규제가 노예제와 다름없으며 성매매를 확산시킨다는 주장만큼 팽배했다. 따라서 규제의 폐지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폐지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질병 통제와 성매매 확산 저지를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춘업소 등록 폐지가 모두의

---

37)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202-206.

38) 위의 책, 211-212쪽.

39) 위의 책, 278-279쪽.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었다. 협회의 주요 인물이자 정부 관료였던 보로티노프는 대회의 결의안을 여기서 멈추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sup>40)</sup> 그러나 포크롭스카야를 필두로 하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정서는 내무성, 더 나아가 차르 정부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규제의 즉각적 폐지였다.<sup>41)</sup>

폐지주의는 성매매의 확산과 성판매자의 비참한 처지를 동시에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흐름이었다. 따라서 폐지주의 정책은 새로운 질병 통제 방법과 치료, 탈 성매매 기구를 보완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규제 폐지 이후에는 더 많은 몫이 사회에게 맡겨진다”고 지적한 안나 밀류코바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sup>42)</sup> 폐지주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규제가 폐지되고 난 뒤 전염병을 막으면서 성매매를 감소시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국 전체에 걸친 의료 개혁이 이루어져, 전염병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제국 전체에 갖추어져야 했고, 보건 교육도 근대적인 수준으로 보급되어야 했다. 도시하층계급 여성의 생활조건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신 손쉬운 조치가 제안되었다. 여성 감독관이 구매자를 고발하게 하자는 제안은 전형적이다.<sup>43)</sup>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판매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국가와 법의 몫이라고 믿었고, 강제적 조치와 결별하는 데 완전히 동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다.

차르 정부는 대회의 결의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13년 두마에 규제 폐지 법안이 올라왔고, 44명의 서명을 받아 내무성에 전달되었으나 취해진 조치는 없었다. 내무성은 1903년 이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회 이후 폐지주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남성 관료, 의사 단체들은 대회의 결의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고, 불세비키는 여성 농민

---

40)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 по борьбе съ торгомъ женщинами и его причинами проиходявшаго въ С. Петербурге томъ 2, сс. 528-532.

41) 위의 책, 2권, 602쪽.

42) 위의 책, 2권, 547-548쪽.

43) 위의 책, 2권, 556-557쪽.

과 노동자의 사회적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을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논평했다. 1913년 이후 폐지주의는 공공영역에서 더 등장하지 못했다. 1914년 러시아여성보호협회는 1916년에 두 번째 대회를 조직하고자 했으나 전쟁으로 대회는 열리지 못했고, 1917년 혁명이 일어났다.<sup>44)</sup>

---

44)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288-290.



### Ⅲ.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달성되어야 했다. 자발적인 의학검진, 싸고 접근 가능한 병원, 대중교육, 경찰 통제 종료가 모두 달성되어야 했고, 이는 제정의 폐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1910년 대회와 폐지주의 계획은 1897년 대회의 질병 통제 각론을 흡수해야 했다. 1917년 혁명 이후 제정의 굴레를 벗은 혁명정부는 이를 성매매 정책으로 구현했다.

#### 1. 혁명 이전의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책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도시하층계급, 특히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여성 문제와 성매매 문제를 사고했다. 러시아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 이들에게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 노동자의 빈곤 탓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성매매를 근절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태로 여겼지만, 여성이 성을 판매하는 이유는 여성 개인의 타락이나 질병 탓이 아니라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부르주아 남성이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인식했고, 계급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레닌이 성매매를 ‘부르주아적 위선’이라고 보았던 것은 정확히 이 맥락에서 나온 평가이다. 여타의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레닌도 규제체제가 지배계층이 성판매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후견하는 제도라고 여겼다.<sup>45)</sup>

여성문제를 계급에 종속된 하위 부문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와중에도 일부 혁명가들은 여성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국 국장으로 혁명 이후 여성 정책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sup>46)</sup> 그녀는 성매매를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45) Richard Stites, “Prostitution and Society in Pre-revolutionary Russia”, p. 359.

46)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

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보았고, 성별 간의 관계를 위계서열화 하므로 사라져야 하는 현상으로 보았다.<sup>47)</sup> 그러나 여타의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역시 혁명 이전에는 성매매를 옹호하는 제정과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데 머무를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제정 하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벌이는 일은 노동계급 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1910년 여성 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대표단의 태도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5명의 대표자는 성매매가 자본주의의 일부이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의 일원인 파블로프는 아동노동제한, 여성과 아동 노동을 감시할 감독관 제도와 8시간 노동제를 성매매의 해결책으로 내놓았다.<sup>48)</sup> 그 근거는 안나 이바노브나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곤궁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sup>49)</sup> 노동자 대표단은 대회의 주도자였던 러시아여성보호협회가 자선단체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고, 대회에 참가한 ‘숙녀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방치한 채 결과를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대회 진행 내내 경찰의 제지를 받던 노동자 대표단은 대회 참가자들이 위선자이며 이 대회는 진지하지도 가치가 있지도 않다고 비난한 뒤, 대회를 주최한 여성 단체와의 갈등 끝에 퇴장하고 만다.<sup>50)</sup>

그러나 노동자 대표단의 태도 역시 성판매자의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규제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억압적 측면을 억제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다. 성매매 규제 정책은 결국 여성 노동자에게 국가가 개입하는 발판이고, 여성노동자를 잠재적인 성판매자로

---

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 연구』, 제 18권(2008: 제 2호), 287-345쪽; Farnsworth, Beatrice,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볼셰비키혁명과 여성해방』, 신민우 역, (서울: 풀빛, 1987).

47) Woods, *Baba and Comrade*, pp. 111-112.

48)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 по борьбе съ торгомъ женщинами и его причаи проиеходивашого въ С. Петербурге, томъ 1, сс. 118-120.

49) 위의 책, 1권, 219-220쪽.

50) 위의 책, 2권, 590-591쪽.

간주하여 감시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단은 규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에도 별다른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전러시아보호협회가 성판매자 여성에게 제공했던 지원도 당시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자 대표단은 위선적인 행위라고 거부했을 뿐이다.<sup>51)</sup> 여성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곧 계급을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성매매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노동계급 남성의 성구매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구매자의 상당수가 노동계급 남성이었다.<sup>52)</sup> 사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까지 성매매 규제 정책은 노동자 대표단이나 사회주의자들의 현안은 아닌 듯 보였다.

제정시기에는 포괄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았던 성매매 문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수립 이후 갑작스럽게 현실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가 규제체제를 폐지하고, 그 뒤를 이어 집권한 볼셰비키 역시 규제 폐지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성판매자와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는 성병은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나 1910년 여성거래에 반대하는 전 러시아 대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듯 규제 폐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폐지주의 원칙 아래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정책은 이전에 사회주의자들이 대립각을 세웠던 여성주의자와 의사들에게서 나왔다.

## 2. 새로운 성매매 정책의 수립

최초의 대응은 1918년 11월 제 1차 전국 여성 노동자 농민대회의 결의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유로운 노동자 공화국의 여성시민은 판매나 구매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sup>53)</sup> 이 선언은 보편적인 정서의

51) 위의 책, 2권, 576쪽.

52)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227-229.

53) А. Коллонтай,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Коммунистка*, 1920.

재확인에 가깝다. 대회에서 제시한 성매매의 해결책은 ‘동지적’ 관계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매춘업소나 개인적인 성매매는 묵인되고 있었다. 혼란은 1920년까지 지속된다.

행정의 실재에 관해서라면, 지금까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성매매와의 투쟁은 통합된 지도 원칙에 따르는 일관된 계획의 결여로 특징지어진다. (...) 한 지역에서는 성매매와의 투쟁에 관한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구습에 따라’ 성판매자를 단속하여 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일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자선의 집이나 보호소가 유지되고 있다.<sup>54)</sup>

성판매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전국 여성 노동자 농민대회의 원칙적인 선언과 전혀 다른 곳에서 다시 출현한다. 1919년 4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반혁명분자를 대상으로 노동수용소를 수립했다. 수용소의 수감 대상 중에는 성판매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페트로그라드 제1노동수용소에 첫째 수감된 인원은 12,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6,577명이 여성이었다. 이 중 전업 성판매자는 338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성을 팔아 부수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던 여성은 전체의 약 60%로 추정되었다.<sup>55)</sup>

여성국은 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성매매 문제는 국가가 사적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개인 간의 관계나 일탈적인 성행위를 국가나 법이 허가하거나 금지해야 하는가? 여성국은 이 관계 자체는 국가 권력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덕은 선전선동의 영역이었다. 두 번째, 성매매는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성국은 성을 판매하는 일은 생산적 노동이 아니라고 여겼다.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부르주아 가족 제도 내의 여

---

№. 6, сс. 15-17.

54) 위의 책, 15-17쪽.

55) С. Равич,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Коммунистка*, 1920, но. 1-2, с. 21.

성이 노동자가 아니듯, 성판매자도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노동자 공화국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계도되어야 했다.<sup>56)</sup> 이런 관점은 코뮤니스트카에 실린 성매매에 대한 기사들에서 드러난다. 라비치는 성매매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계급에 따라 사회가 구분되는 부르주아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삶의 조건, 무자비한 착취, 경쟁, 주기적인 공황,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 끔찍하게 무의미한 신사 신분의 삶이 필연적으로 여성을 상품으로 만든다.

성매매는 한편으로는 가장 높은 미덕인 결혼의 베일 아래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적 관계의 필연적인 동반자이다. 이런 가혹한 유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서둘러 올바른 투쟁을 시작해야만 한다.<sup>57)</sup>

여기서 성매매의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조건이다. 공황과 착취에 대한 언급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서 성매매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두 번째 원인은 기존의 결혼 제도이다. 여기서 결혼과 성매매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콜론타이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 경제에서 여성의 힘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으로 성매매의 뿌리를 교란시킨다는 점이다. 우리가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의존한 채 일하지 않는 여성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의 애무를 사거나 파는 일은 계속될 것이

---

56) Woods, *Baba and Comrade*, p. 116.

57) С. Равич,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с. 21-23.

다.<sup>58)</sup>

콜론타이는 전업 주부와 전업 성판매자를 노동하지 않는 인구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녀에게 이 두 집단의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은 인구였고, 뒤집어서 말하자면 주부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여성들은 남편이나 구매자의 피부양자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구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노동자 공화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었다. 성판매자는 대부분 기존의 특권계급 여성이었던 ‘남편과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여성’과 함께 노동 기피자라는 죄목으로 노동 수용소로 끌려들어갔다. 여성국을 비롯한 볼셰비키 정권에게는 노동 수용소와 노동 징발이야말로 성판매자를 신분이나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하는 방법이었다. 성판매자 만을 위한 대응책은 필요하지 않았고, 수립될 필요도 없었다.

성매매에 대해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공격은 보편적인 의무 노동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된 성매매, 즉 생계를 위한 성매매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페테르부르크와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을 성매매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는 자의 노동으로의 적응이라고 부른다.<sup>59)</sup>

노동자 공화국은 성매매에 대한 공화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확고한 계급적 노선에 섰다. 성매매와의 특별한 투쟁 방법은 없다. 성매매가 부업일 뿐인 노동자 여성은 여성국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의 투쟁과 노동자 계급 남성들 사이의 투쟁을 지도하는 한에서는 오직 선전 선동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노동 기피자인 전업 성판매자에게는 다른 기피자들과 마찬가지로

---

58) А. Коллонтай,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сс. 15-17.

59) С. Равич,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с. 21-23.

공통된 책임을 묻게 된다. 만약 이런 여성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회피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받게 된다면, 그녀는 똑같은 역할을 받는다. 즉, 환자들은 클리닉에 가고, 건강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동 정착지로 가며, 숙련공은 강좌, 전문적 훈련 학교 또는 노동력 등록과 배분 지국으로 간다.

성판매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소나 정착지는 없다.<sup>60)</sup>

여성국이 표명한 태도는 명백히 규제폐지주의였다.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지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성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여성국이 내세우는 폐지주의의 근거는 도덕주의적 관점이나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콜론타이가 새롭게 제시한 기준은 노동이었다. 노동자공화국에서 성매매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판매가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성매매는 일종의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여성국의 규제폐지주의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동시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었다. 성매매는 노동일 수 없었고, 그 이유는 그것이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에 어울리지 않는 부도덕한 일이고 여성에 대한 착취이기 때문이었다. 도덕주의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기준 뒤에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1920년 전 러시아 여성국 회의에서 콜론타이는 성판매자 자체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노동 기피자를 고발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sup>61)</sup> 사회주의자들이 차르정부의 규제주의 정책을 비판할 때, 그들은 성매매가 부르주아 남성이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하는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였고, 부르주아 남성 구매자는 사라졌다. 여성노동력이 필요한 전시공산주의시기에 노동자들 사이에 질병과 도덕적 혼란을 퍼트리고 ‘계급

---

60) A. Коллонтай,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сс. 15-17.

61) Woods, *Baba and Comrade*, p. 112.

연대'를 훼손하는 성판매자는 결코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생산적 노동'에 종사해야만 했다.

1920년 여름, 사회복지인민위원회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간위원회를 열었다.<sup>62)</sup> 여기 참가한 각 부서의 면면은 성매매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대응을 요구하는 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내무인민위원회와 보건인민위원회<sup>63)</sup>는 성병 문제를 보건인민위원회가 다루기를 원했다. 모스크바 소비에트와 경찰은 법률인민위원회가 포주와 성판매자, 구매자 중 처벌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기를 바랐고, 법률인민위원회는 이를 수행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수립하고자 했다. 사회복지인민위원회는 수사관이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매매 유입을 막는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국은 젊은 노동자들이 동지적 관계를 배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의 해결과 모성보호, 실업자 보장 규정, 미성년자 노동 금지 등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정책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sup>64)</sup>

1921년 부서 간 위원회는 결국 개인 간의 성적인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sup>65)</sup> 금지주의는 완전히 무력해진 것처럼 보였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게 되었다. 경제적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혹은 부업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야말로 불세비키가 떠올리고 있던 성판매자였다. 이들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각종 사회적 보장을 누리게 된다면 성판매를 그만두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전업 성판매자들이 노동기피자의 죄목을 달고 노동 수용소를 거쳐 노동 정착지로 가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 정착지의 생활을 마친 후에도 꾸준히 감시 대상이었고, 그들 주변에서 또 다른 성판매자가 노동 수용소로 끌려 왔다.

---

62) 1926년 성매매 대응이 보건 인민위원회 업무로 명시되었다.

63) 사회복지인민위원회는 1918년 1월 18일의 포고령으로 수립되었다.

64) Woods, *Baba and Comrade*, p.113.

65) 위의 책, 114쪽.



여성 노동 정착지가 조직되었다. (...) 정착지는 세스트로레크 근교의 라즈리프 역에 위치해있다. 500명이 예상되었다. 지금 그 곳에는 이미 200명 이상이 있다. 기술이 확충된다. 문화-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은 노동하는 삶으로 향하는 강한 의지와 견고한 경험을 가지고 나온다.

우리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 정착지 거주 기간을 마친 후에, 퇴소자 개개인은 반드시 적절한 직업을 얻어야한다. 집행국(강제노동부 산하)과의 관계는 모든 퇴소자에게 거주지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학생들의 삶을 좀 더 오래 추적하면서 그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끌어낸 사람들을 노동하는 삶에 적응시키는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66)</sup>

여성국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의 법률가들도 이 문제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가 사적영역에 개입하는 범위를 정하는 일로 간주했다. 1920년대 소비에트 형법이 성매매를 다루는 기준은 엄격한 성매매 비범죄화 원칙이었다. 1922년 형법은 성매매에서 제 3자가 이득을 얻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1910년 대회에서 합의된 매춘업소 폐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으나, 볼셰비키의 형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비범죄화의 대상은 성판매자 본인뿐만 아니라 구매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구매자가 처벌 받는 경우는 성매매를 강제했을 때뿐이었다.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강제가 개입하지 않는 성매매가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170조: 누군가를 이기적인 또는 개인적인 동기로 인해 물리적 또는 심리적 영향을 미쳐 성매매를 강제하는 일은 최소 3년 이상의 엄격한 고립상태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처벌된다.

171조: 성매매 알선, 부덕한 소굴의 유지와 성매매에 여성을 모집

---

66) С. Равич,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с. 21-23.

하는 행위는 최소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사유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의 몰수로 처벌된다.<sup>67)</sup>

그러나 이렇듯 구매자 처벌조차 금지하는 확고한 비범죄화 기조는 당국의 정책 전반에 걸쳐 일괄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1922년 형법이 제정되는 결에서 내무인민위원회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었다. 1922년 중반 조직된 “도덕 의용군”은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포주와 구매자를 체포하고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활동을 벌였다.<sup>68)</sup> 이런 움직임은 20년대 말에도 발견된다. 1928년 『여성노동자-여성농민(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에는 블로다르스키 라이온의 성매매와의 투쟁을 위한 소비에트가 남성 구매자들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벌금을 올리고 가족과 공장에 성구매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sup>69)</sup> 남성 구매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난하는 이러한 흐름에서 발견되는 것은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성적인 결벽과 도덕주의적 관점에 근거를 둔 금지주의에 가깝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성매매는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 어려운 영역이며,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 시기에 중첩되었다는 이상의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당국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성매매 정책은 혼란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성과가 낮고 가시적이지 않은 영역이었다.<sup>70)</sup> 여성국의 관심은 1923년 이후 성매매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국 기관지인 코뮤니스트카에서 성매매를 다루는 기사는 1923년 5월 이후 이후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여성국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여성 농

---

67)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1922 год (Москва: Управление делами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1950), с. 153.

68) Elizabeth Waters, “Victim or Villain”, p. 167.

69) Федотова, “Что нужно внести в работу советов по борьбе с проституцией”,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1928, 권호불명, с. 17.

70) Woods, *Baba and Comrade*, p. 115.

민의 조직과 여성 노동자 사이의 선전 선동이였다. 1926년 결혼법 논쟁 이후에는 여성국 기관지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1923년 이후 신경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여성 실업의 증가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의사들이였다.

### 3. 노동교화소(трудовой профилактории)

이미 1918년부터 보건인민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던 성의학자들은 보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2월 혁명으로 제정 시대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 피고로프 협회 산하에서 성병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회의를 통해 대중 강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897년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성병 해결책의 일부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번스틴은 의학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분과였던 성의학이 의학 분과 중 하나로서 인정받고자 했고, 혁명으로 수립된 새로운 정권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1918년 4월 29일 성병에 대항해 싸우는 전 러시아 위원회가 조직되고, 같은 해 10월 이 위원회는 보건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편입되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보편적인 보건 교육과 의료 체제의 확충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성병 치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sup>71)</sup>

1919년의 노동 수용소 안에서도 이미 성병 문제는 제기되고 있었다. 각 수용소에는 병동이 운영되었고, 수용소 밖에도 병원이 열렸다. 성병 환자들은 병동 안에서 중증과 경증 집단으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경증 집단은 치료를 받으면서 문맹 퇴치 교육이나 기술 교육을 받았다.<sup>72)</sup> 공공보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내무인민위원회나 보건인민위원회만이 아니었다. 여성국 역시 초기부터 병원과 병동 설치, 공공 보건 확충에 동의하고 있었다.<sup>73)</sup> 그러나 성병 전문 병원은 여성국이 부정했던 성매매만

71) Frances lee Bernstein, *Dictatorship of Sex*, pp. 17-19.

72) С. Равич,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 22.

73) 위의 책, 23쪽.

을 위한 특수한 해결책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미 1897년 학술대회에서 질병 통제 체제의 청사진을 그렸던 의사들이 이런 변화를 추동했다.

노동기피자 일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성판매자만을 위한 특수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신경제정책이 도입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노동 기피가 더 이상 죄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성판매자들이 끌려갔던 수용소도 대부분 문이 닫혔다. 직장을 잃은 여성들은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불세비키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 남성이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한다는 설명은 유효할 수 없었다. 콜론타이는 “자매”에서 네프맨에게 영향을 받아 동지적 관계였던 아내를 방치하고 성을 구매하는 남성 당원의 모습을 그렸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여성, 아내와 성판매자는 실업 때문에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똑같이 불행한 처지에 놓인다. 아내는 남편의 성구매를 막을 수 없고, 성판매자 여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있는 남자의 집에 온다. 소설의 마지막에 두 여성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매처럼 느끼게 된다.<sup>74)</sup> 이 소설은 이해할 수 없는 성매매의 증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이며, 이전에 콜론타이가 주장했던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을 파는 이도 사는 이도 ‘프롤레타리아’였다. 차르정부 시대부터 사회주의자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하층계급 남성의 성구매 문제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sup>75)</sup> 그러나 신경제 정책의 ‘부르주아적 요소’를 비판했던 이들은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부르주아적 네프맨 이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실업은 완전고용을 포기한 경제정책의 자본주의적 성격 탓이라고 여겼다.<sup>76)</sup> 성매매는 중앙 정치의 담론 안에서 이행기의 국가 정책이 옳은 방향

---

74)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현애, 정호역 역, “자매”, *위대한 사랑*, (서울: 노사과연, 2013), 143-161쪽.

75) Laurie Bernstein, *Sonia's Daughters*, pp. 90-93.

76) 여성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콜론타이는 여성국 국장으로 활동 하던 시기에 공산당의 좌익인 노동자 반대파의 지도자였다. 1921년 러시아 공산당의 10차 당 대회에서 레닌이 주장한 신경제 정책이 통과되었고, 노동자 반대파는 당 대회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콜론타이는 1922년에도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아 당의 경고를 받았고 결국 여성국 국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신경제 정책에 대한 콜론타이의 비판은

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지표인 것처럼 활용되었다.<sup>77)</sup>

이제 성판매자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였다. 그들은 완전고용이 목표인 국가에서 불운하게 실업 상태에 내몰려 몸을 팔아 먹고살게 된 불쌍한 여성들이었다. 여성 실업을 당장 개선할 수 없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인 보건인민위원회와 사회복지인민위원회는 신경제정책 시기에 성매매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을 상시 운영했다. 1926년 사회복지인민위원회 규정 개정안에는 부랑자와 구걸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복지인민위원회의 관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sup>78)</sup> 1927년 보건인민위원회 규정<sup>79)</sup> 역시 보건인민위원회 산하에 성매매와의 투쟁에 관한 중앙 소비에트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와의 특별한 투쟁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던 콜론타이의 주장은 더 이상 당연한 원칙이 아니었다. 성판매자들은 노동 기피자의 죄목 대신, 희생자의 지위를 다시 얻었다.

노동수용소에서 발전해 나간 성병 치료소로 여성 환자는 점점 더 많이 유입되었다. 의사들은 최소한 전염 단계가 지나갈 때까지라도 환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료된 환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얻지 못한다면 치료도 보건 교육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sup>80)</sup> 그러나 신경제정책 시기의 여성 실업률은 높았고 미숙련 노동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웠다.<sup>81)</sup> 치료소는 의학적 치료와 치료 과정의

---

여성해방론자로서의 의견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신경제 정책은 대규모의 여성 실업과 사회정책 예산의 삭감을 의미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여겨졌다.

77) Woods, Elizabeth, "Prostitution Unbounded," in *Sexuality and the Body in Russian Culture*, ed. Jane T. Costlow, Stephanie Sandler, and Judith Vowles, 124-135(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129-131pp.

78) 1926년 사회복지인민위원회 규정 제 4장 12조 3항.

79) 1927년 보건인민위원회 규정의 제 3장은 보건인민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11조 B항이 성매매와 투쟁하는 중앙소비에트(Центральный совет по борьбе с проституцией)이다.

80) Frances lee Bernstein,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The Soviet Labor Clinic as Revolutionary Laboratory," in *The Human Tradition in Modern Russia*, ed. Willan B. Husband, (Willington, USA: Scholarly Resources Inc., 2000), p. 116.

81) Wendy Goldman, *Women, The State and Revolution*, p. 195.

의식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비용을 스스로 벌기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했고, 더 나아가 완치 이후 생산적인 노동을 시작하기 위해 훈련 받는 곳이어야 했다. 의사들은 1897년 학술대회의 질병 치료 방법에 1910년 대회의 사회적 해결책을 흡수했던 것이다.

1924년 6월 모스크바 제 2 성병치료소에서 노동교화소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질병의 치료와 격리, 재활과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sup>82)</sup> 의사들은 기존에 행해지던 강제적 조치를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유화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벌였다. 피해자이므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고, 원한다면 '직업병'을 고치러 오라는 식이었다. 의사들은 이런 방식이 성병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고 믿었다.<sup>83)</sup> 감염된 성판매자들은 성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노동훈련을 비롯한 교육을 받았으며, 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신경제 정책 시기의 높은 여성실업률을 고려하면 고용보장은 매력적인 보상이었을 것이다. 교화소는 전국에서 최대 44개까지 증가했고, 이 시기의 수용인원은 최대 천명에 달했다.<sup>84)</sup>

교화소는 병원과 공장, 학교가 결합된 형태였다. 재정은 자족적으로 수급했고, 수용된 성판매자에게는 월급을 지불했다.<sup>85)</sup>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교화소는 전시공산주의 시기의 부서간위원회처럼 여러 부처의 개입 아래 운영되었다. 입소를 위해서는 노동교화소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위원회는 여성국과 콤포스 등의 당 기관 대표자와 다양한 보건, 자원봉사 협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sup>86)</sup> 월급과 일자리를 목표로 극빈층 여성

82) Frances lee Bernstein,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p. 116.

83) Waters, "Victim or Villain," p. 167.

84) Frances lee Bernstein,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p. 115.

85) Гордон,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Первый женский трудовой профилактикой",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1928, 권호불명, cc. 13-14.

86) 성매매대항평의회(the Council for Fight against Prostitution), 노동과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위원회(the Committee to Make Labor and Everyday Life Healthy)였다. 이 두 조직은 여성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참여가능한 활동으로 만들었다. 성병 치료소와 연계해 대중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기차역, 숙박업소, 식당, 카페 및 길거리를 다니며 성판매 여성에게 탈성매매와 교화소 입소를 제안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다. Frances lee Bernstein,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p. 118.

들이 입소를 원하기도 했으나, 주로 병원과 수용소의 성병 환자들이 선발되었다. 1928년 레닌그라드에 설립된 교화소는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지원자가 700명 이상 몰려왔다.<sup>87)</sup>

교화소의 과제는 치료 지원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 산업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교화소 안에, 여성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 작업장(재봉과 직조)을 마련하는 이외에도, 교화소 생활 중에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교육적 사업 역시 실행되고 있다.

교화소의 프로그램은 공장 부속 공업학교(fzu)와 그 목표를 모범삼아 수립되었는데,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 여성노동자들을 준비가 잘 됐든 덜 됐든, 산업 혹은 사회사업, 국영 공장으로 보낼 수 있다.

현재 작업장 관리 하에는 33개의 재봉틀과 20개의 양말 기계가 있다. 기계의 수는 85개까지 늘릴 예정인데, 기술 교육이 늦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교육 계획은 일 년간 최소 200명의 교육 받은 숙련 여성 노동자가 배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sup>88)</sup>

이 시기의 의사들은 1897년 학술대회에서 쟈스트보 의사들처럼 유전적 요인, 행동 장애 등의 개인적 원인 대신 사회 경제적 원인 즉 굶주림과 빈곤이 성매매의 주요 동인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성매매와의 단절을 위해서 성판매자 개인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노동 교육 다음으로 강조된 문화와 교육 사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화소의 치료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노동자 가족 일원으로서 갱생한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정신병 대신 구습, 부르주아적 유산 등의 단어가 쓰였고 치료 대신 교육이 자리 잡았다. 의사나 감독관은 성병을

---

87) Гордон,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Первый женский трудовой профилакторий”, сс. 13-14.

88) 위의 책, 13-14쪽.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입소한 환자들의 생활과 행동 전반을 감독했다. 치료와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sup>89)</sup>

이에 따라 입소한 여성들은 엄격한 규율 아래 노동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출입이 제한된 교화소 내에서 하루 일과는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교화소 생활은 공장보다 강력한 규율과 조직된 시간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입소자들은 첫 두 달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출이 금지되었고, 그 이 후에도 소장의 허가를 받고서야 외출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밤 10시 이전에 돌아와야 했다. 성매매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야간 외출은 금지되어 있었다. 입소한 환자들의 출입과 자유 시간을 통제하는 방침은 결국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만이 아니라 개인적, 심리적 원인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였다. 규율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돌아온 경우,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자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의도적으로 치료 과정에 불참하는 경우 등에 경고를 주었고, 2차 경고를 받으면 1~6일간 노동 정지 처분이, 3차 경고를 받았을 때는 퇴소가 처벌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sup>90)</sup>

무엇보다 중요한 규율은 노동규율이었다. 노동 규율의 습득은 곧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력이 되는 첫 단계로 간주되었다. 여성들을 노동 아닌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생산적인 노동을 익히게 한다는 목표는 교화소를 사회주의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제정 시기 여성단체의 탈성매매 쉼터와 교화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고 일컬어졌다. 입소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30~35루블 가량의 봉급을 받았다.<sup>91)</sup> 교화소 내의 노동도 중요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성을 팔던 여성들을 산업노동력으로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노동교화소 운영자들은 '길거리'에서 고통 받은 여성들의 심리적 요인을 장애물로 여겼다. 실제로 여성들 사이에서 히스테리나 신경쇠약에 걸린 경우도 있었고,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여성들은

---

89) Frances lee Bernstein,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pp. 122-123.

90) 위의 책, 119-121쪽.

91) 위의 책, 121쪽.



싸움과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노동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만 교화소, 더 나아가 소비에트가 원하는 의식있는 프롤레타리아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입소자들에게 강제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프롤레타리아로서 포괄적인 정치, 문화, 사회적 준비, 즉 계몽을 위해 요구되었다. 여성들이 지식을 쌓고 적절한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쌓아야 공장 동료들과의 불화를 피할 수 있고, 다시 성판매자가 되거나 부업으로 성을 팔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sup>92)</sup>

종교 교육이 사회주의 정치 교육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규칙과 상호감시는 제정 시대의 재활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화소도 재활원과 마찬가지로 성판매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연간 50% 가량이 자의로, 혹은 규율 위반으로 퇴소했고, 성공적으로 교화소 과정을 마친 이들 중에 공장 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시 성매매를 시작하거나, 교화소로 가거나, 사라지거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병행하기도 했다. 성공적으로 갱생한 여성들의 성공담이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sup>93)</sup>

노동교화소선발위원회를 비롯하여, 성매매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

92)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보다 학술적인 정규 교육이었다. 글을 배우거나 산수, 지리, 정치, 물리학을 배우는 과정이 여기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과 감성을 발달시키는 “대중 부문”이었다. 연극, 체육, 오케스트라, 문학, 예술, 성악, 체스 등의 동아리 활동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었다. 적십자 활동, 응급치료법, 무신론, 조합주의, 정치의 기초 등 다양한 강좌가 여기 속했다. 교화소 내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입소자들은 고등 교육이나 패턴 재단법, 재봉 기술, 위생학 등 교화소 바깥의 전문 기관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전문 교육과정도 존재했지만, 일반적으로 교화소에서 진행된 교육의 목표는 성판매자를 정치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문학 동아리나 문맹퇴치 교실에서는 무신론이나 내전에 대한 글을 읽었다. 사회 정치적 개념을 익히고 합리주의·과학적 관점을 배양하기 위해 정치, 법, 역사, 자연과학, 무신론, 생산, 혁명 등의 주제가 각종 매체와 방법을 통해 선전되었다. 공공보건의 교육에서도 정치적 선전은 빠지지 않았다. 소비에트의 탈성매매 정책과 성병 퇴치 방법이 서구나 제정 러시아의 그것과 달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식이었다. 그 외에도 정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침투되었다. 각종 기념일 행사나 대회 출전, 적십자 교육, 산업화 기금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이나 교화소 바깥의 정치활동도 이루어졌다. 성판매자이자 성병 환자였던 여성들이 여성국이 조직한 대표자 회의에 참여했고, 노동조합이나 지역 노동자 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위의 책, 122쪽.

93) 위의 책, 124-125쪽.

당국의 활동가들은 치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구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교정을 받아들여 성공하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로”<sup>94)</sup> 나간 이들이며, “버려진 아내”<sup>95)</sup>였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성판매를 그만두고자 했으며,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두 번째 집단은 교정을 거부하는 여성들이었다. 성매매와의 투쟁을 위한 위원회에서 일하며 성판매 여성들과 직접 접촉했던 블라소바는 이들의 목표가 사치라고도 생각했고, 알콜 중독 탓이라고도 했으며, 가정환경 탓이라고도 했다.<sup>96)</sup> 그녀는 첫 번째 집단을 '여성', 두 번째 집단을 '창녀'로 구분하고 있다. '창녀'는 이제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원천으로도 간주되고도 있었다. 블라소바는 자신이 만난 성판매자 여성에 대해 보고하면서, 두 부류의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고 있다.

정직하게 노동하는 길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결론 하나는, 노동자 소비에트의 원조, 지원, 우리 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자 하지 않는 저 성판매자들과는, 가혹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한 해나 두 해를 나뉘고 솔로브카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가장 가혹한 노동 체제에서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일 년 후 돌아와 버린 그들은 다시 한 번, 질병을 퍼트리면서, 종종 방치되는 미성년자를 이 길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sup>97)</sup>

블라소바에게 두 번째 집단은 교정을 거부하고 질병을 퍼트리며 순진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여성,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사회적 조건에서 성매매의 원인을 찾는 대신 개인의 이상심리에서 원인

94) Власова,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Кто попадает в ночлежку",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1928, 권호불명, с. 16.

95) 위의 책, 16쪽.

96) 위의 책, 16쪽.

97) 위의 책, 16쪽.

을 찾는 타르노프스키의 주장이 다시 되돌아 온 듯 보인다. “자매들”에서 콜론타이가 등장시킨 성판매자는 한 명이 더 있다. 주인공 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매’가 되는 여성 이전에 그녀의 남편은 “진한 립스틱에 술에 취한, 뻘한 부류”<sup>98)</sup>의 여자를 데리고 온다. 주인공 여성은 이 사건을 두고 “매춘부와의 일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sup>99)</sup>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교정되지 않는 성판매자는 계속해서 일정정도 존재해왔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여성들을 더 이상 설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으려는 태도이다. ‘사치하기 위해 성을 판매하는 창녀’라는 구분은 차르시대의 도덕주의적 접근법과 타르노프스키의 이상성애자로서의 성판매자와 궤를 같이 하며, 동시에 전업 성판매자들이 전시공산주의 시대에 얻었던 죄목인 노동 기피자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여성 고용의 증가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이다. 1920년대 후반, 보건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인 성매매와의 투쟁에 관한 중앙 소비에트에서 고스플란의 모틸레프는 성판매자가 사회위험분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연설했다. 부랑자나 구걸행위 뿐만 아니라 사보타주, 우익, 일탈자에 대한 적대와 성판매자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하나로 묶이게 된 것이다.<sup>100)</sup> 20년대 말 다수의 의사들이 보다 급진적인 수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요소”이자 “사회적 이상 현상”인 성판매자들이 5개년 계획을 달성하려는 국가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화소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sup>101)</sup> 스탈린의 권력 장악이 확실해지고 1929년 드디어 5개년 계획이 도입되면서, 성판매자는 사회위험분자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노동교화소 대신 10개의 노동수용소가 성판매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을 생산적 노동으로”라는 구호는 이번에도 억압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sup>102)</sup> 그

9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자매”, *위대한 사랑*, 151쪽.

99) 위의 책, 153쪽.

100) Waters, “Victim or Villain,” pp. 160-161.

101) Frances Lee Bernstein,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pp. 126~127.

102) Waters, “Victim or Villain”, pp. 160-161.

러나 신경제정책 시대와 5개년 계획의 시대 사이에 산업화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훈련을 통해 성매매를 해결한다는 논조는 바뀐 적이 없었다. 바뀐 것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비중이었다.

## IV. 결론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질은 국민국가의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었다. 개인이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국가의 시야 안에 들어온다면, 국민의 건강은 보건정책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sup>103)</sup> 몸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이 갈등하는 영역이다.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의도와 함께 당대 사회관계와 담론이 복잡하게 뒤얽힌 결과물이었다. 그 중에서도 성별 관계는 보건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인구의 질은 출산과 직결되어 있으며, 여성의 몸과 여성 인구의 건강은 보건 정책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였다. 여성에 대한 보건 정책은 사회의 성별 관계, 여성에 대한 담론뿐만 아니라, 노동의 양상에 따른 가족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19세기 여성 인권 운동의 대두와 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여성 노동력의 증가는 유럽 사회의 성별 관계 및 가족의 양상이 변화하는 전환점이었다. 여성을 통제해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국가와 노동 동원에 대한 보답으로 시민권을 요구하는 여성은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 와중에 확산되던 성병은 근대국가에게 인구의 질,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서 성병 억제 정책은 성별과 계급에 따른 편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국가의 정책이 이 편향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무대이다. 19세기의 유럽 국가들은 성병의 확산을 국민 전체의 보건 향상이 아니라 가족 바깥에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을 통제해 막고자 했다. 구체적 양상은 각 국가별로 일정한 편차를 보이지만, '타락한' 여성이 인구 전체의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과 이들 보균자를 검진, 격리, 치료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즉, 성병 통제가 성매매의 통제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성판매자 여성들이 국가정책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제정 러시아 역시 1848년 내무성 주도하에 성판매자를 본격적으로 규제

---

103) 헨리 지거리스트, 『문명과 질병』, 165-170쪽.

하기 시작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은 경찰에 등록되고 국가에 고용된 의사에게 주기적인 검진을 받았다. 이들 중 감염자가 발생하면 지정된 병원에 수감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성판매자와 '정숙한' 여성을 구분하는 선이 법률의 지지를 받아 강화되었다. 국가 권력은 종종 도시 하층 계급 여성 전체를 잠재적 성판매자로 바라보기도 했으며, 성풍속의 변화는 '정숙한' 여성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의사들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내무성은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성병의 규제에서도 실패하고 성매매를 방조하는 셈이 된 규제제도는 제정의 비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제정의 비판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세력은 여성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다. 보균자로 의심받는 대상이었던 하층 계급, 그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처지에 대해 이들은 새로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보편적 인권 담론 하에서 하층 계급 여성의 어려운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행동을 벌였다. 부르주아 가족 모델 안에서 '일탈'한 '여동생'들을 구원하고자 한 엘리트층의 여성들이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하층 계급 여성이 성을 판매하게 되는 원인이 여성의 빈곤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성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 대전과 전쟁 중에 일어난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제정 러시아의 구체제가 무너지고 재편되도록 했다. 볼셰비키 정권은 성매매 규제제도를 즉각 폐지했고, 러시아의 여성시민은 거래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볼셰비키는 한편으로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여성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해결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4개에 달하는 노동교화소가 수립되었다. 당(여성국)과 노동조합,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는 교화소는 병원이자 공장이며 또한 학교였다. 한편으로 성판매 여성의 감염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성병 문제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계몽

정책 및 보건정책에 의해 완만하게 정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려온 질병통제체제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은 제정 시대의 질병관리모델과 차이를 드러낸다. 물론 성병 관리가 전반적인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포괄되며, 이를 관리하는 국가 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제정시대와 유사한 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차르 정부가 행했던 도시하층계급 여성에 대한 통제와 대단히 다른 양상을 띤다. 성병의 해결은 성매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한 성계몽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성 노동자는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학의 발달과 도시하층민에 대한 태도 변화였다. 매독은 점차 정복되고 있었고 이전 시대만큼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또한 볼셰비키 정권은 도시하층민의 지지를 체제 기반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과 공공보건의 증진을 추구하는 데 자원의 부족 외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성매매가 곧 질병이라는 공식은 힘을 잃었고, 여성과 사회가 맺는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성판매자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국가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소비에트 여성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성매매는 직업이 될 수 없었고, 생산적 노동으로의 문은 성판매자들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문은 아니었다. 사회가 여성노동력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즉 여성 실업률의 부침에 따라서 문은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했다. 여성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했던 시기인 전시공산주의 시대에 성판매자는 노동기피자로 간주되어 강제 노동의 대상이었고, 여성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신경제정책 시기에는 성판매자가 ‘부르주아적’ 정책의 피해자로 간주되었다. 탈 성매매 지원 기구인 노동교화소가 전국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5개년 계획의 산업화 드라이브의 도입과 함께 성판매자가 다시 한 번 노동회피자가 되고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증가와 궤를

같이 했다.

20년대의 각종 실험과 개혁 제도들이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 스탈린의 ‘반동’ 이전부터 여성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른 사회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30년대의 정상 가족 모델의 강조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내전의 종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혁명 이후 ‘정상’상태로의 착륙과정에서 여성 해방의 기획은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부터 이미 완만한 퇴보와 협상의 과정이었다. 성병의 해결이 성매매 정책의 바깥에서 공공보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성판매자는 사회 전체의 질병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 바깥에서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의 구성적 외부로 남았다.



# 참고문헌

## I. 1차 사료

### 1. 법령집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1922 г  
од. Москва: Управление делами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1950.

### 2. 잡지, 신문

Коммунистка, 1920-1927.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1928.

### 3. 출간 사료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 по борьбе съ торгомъ ж  
енщинами и его причами проиеходивашаго въ С-Петербур  
ге томъ 1. С. Петербургъ: Типо-Литорграфия С. Петербур  
гской Тюрьмы, 1911.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 по борьбе съ торгомъ ж  
енщинами и его причами проиеходивашаго въ С-Петербур  
ге томъ 2. С. Петербургъ: Типо-Литорграфия С. Петербур  
гской Тюрьмы, 1911.

## Ⅱ. 2차 자료

### 1. 단행본

Bernstein, Frances lee, Dictatorship of sex. Dekalb: Northern Illinois Press, 2007.

Bernstein, Frances lee, Healey, Dan, Burton, Christopher, Soviet Medicine: culture, practice, and science.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10.

Bernstein, Laurie, Sonia's Daughters: Prostitutes and Their Regulation in Imperial Russia.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Clements, Barbara Evans, ed. Russia' women : accommodation, resistance, transformation.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Costlow, Jane T., Sandler, Stephanie and Vowles, Judith, Sexuality and the Body in Russian Cultur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Edmonson, Linda Harriet, Women and Society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Engelstein, Laura, The Keys to Happiness: Sex and the Search for Modernity in Fin-de-Siecle Rus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Goldman, Wendy, *Women, The State and Revolution: Soviet Family Policy and social life, 1917~1936*. Cambridge;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Harsin, Jill, *Policing prostitution in nineteenth-century Par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Hutchinson, John F., *Politics and public health in revolutionary Russia, 1890-1918*.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Husband, Willan B., *The Human Tradition in Modern Russia*. Willington, USA: Scholarly Resources Inc., 2000.

Kon, Igor Semyonovich, *The Sexual Revolution in Russia: from the age of czars to toda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Levina, Philippa, *Prostitution, race, and Politics: policing venereal disease in the British Empire*. Routledge, 2003.

Solomon, Susan Gross, Hutchinson, John F., *Health and society in revolutionary Russia*.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Stites, Richard,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Russia: Feminism, Nihilism, and Bolshevism 1860~1930*. Prinston: Prinston University Press, 1978.

Walkowitz, Judith,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 Women, Class and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Woods, Elizabeth, *Baba and Comra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번 벌로, 보니 벌로, 서석연, 박종만 역, 『매춘의 역사』. 서울: 까치, 1992.

베아트리체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볼셰비키혁명과 여성해방. 서울: 풀빛, 1987.

앵거스 맥러렌, 임진영 역, 『20세기 성의 역사』.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사람생각, 2004.

헨리 지거리스트, 황상익 역, 『문명과 질병』. 파주: 한길사, 2008.

## 2. 논문

Engel, Barbara Alpen, “St. Petersburg prostitut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Personal and Social Profile”, The Russian Review 48, No. 1(Jan, 1989), 21~44pp

Stites, Richard, “Prostitution and Society in Pre-revolutionary Russia”, Geschichte Osteuropas 31, No.3(Jan, 1983), 348~364pp.

기계형,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 소비에트시대 초기의 여성부(Женотдел), 1919-1923」, 『여성과 역사』, 제 8호(2008), 121-168쪽.

\_\_\_\_\_, 「제정러시아 말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빈민층 여성과 성매매」, 『여성과 역사』, 제 20집(2014), 63-96쪽.

은은기, 「프랑스 매춘부 규제정책과 리용 매춘부들의 저항운동」, 『대구사

학』, 제 95호(2009), 263-283쪽.

이성숙, 「‘움직이는 페미니스트 군단’-영국 성병방지법 폐지운동가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 1869~1886-」, 『영국연구』, 제 4호(2000), 55-82쪽.

\_\_\_\_\_, 「영국 빅토리아시대 성병방지법과 매춘여성」, 『서양사론』, 제 69호(2001), 67-97쪽.

변기찬, 「19세기 프랑스 매춘 규제 운동의 모순과 그 한계」, 『外大論叢』, 제 28호(2004), 643-660쪽.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자의 삶」, 『역사와 문화』, 제 16호(2008), 197-228쪽.

\_\_\_\_\_,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 제 18호 2권(2008), 287-345쪽.

\_\_\_\_\_,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가족, 출산 정책: 현실과 논의들」, 『서양사연구』, 제 23집(2010), 33-78쪽.

# Abstract

## The Transition of Prostitution Policy in Revolutionary Russia: From Disease to Labor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a series of changes in prostitution policies throughout the revolutionary Russia with respect to the transition from discourses of disease to labor. In 1843, the Russian Empire implemented a police-medical inspection system designed to control prostitution in a purpose of decreasing venereal diseases across the country. Although the regulation system compelled registration and regular medical examination to prostitutes, it failed to control venereal diseases. The Bolshevik regime replaced the old regulation system to new criminal laws that decriminalized prostitution and supportive institutions for former prostitutes. There was a wide gap between the blueprint and reality, however. The authorities sentenced prostitutes to compulsory labor and sex buyers to some penalties. Prostitutes were not always adjusted the rehabilitating institutions which were suffered by lack of resources. All in all, during the Stalin era, the authorities not only abolished the rehabilitating system but also sent prostitutes to compulsory labor camps.

This research examines multifaceted aspects of prostitution policies while previous research simply focuses on the difference in the policies between administrations. In previous research, the Bolshevik regime is the sole key to initiate the overall new prostitution policies. The new government abolished the old regulating system and then implemented new prostitution policies seemingly favorable to prostitutes than before. In this scenario, the old coercive system as well as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models recovered, as fervent support for the revolution remarkably disappeared in the 1930s. This approach, however, fails to explain dynamics in this issue. First,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y perceived of prostitutes as labor deserters in the period of War Communism. Second, the Bolshevik rank and files still maintained moralistic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at the end of the 1920s. Different origins of the prostitution policies in Soviet Russia could account for these aspects. Two main ideas were materialized into the new policies: abolitionism and the blueprint of public health. The Bolsheviks encompassed both eager for abolitionism by feminists and passion for better health care by doctors on the basis of their socialistic constitution, which urged every citizen to devote oneself to productive labor in the new era.

In this sense, prostitutes should be engaged in productive labor, thereby being Soviet citizens. The perspective that prostitution is not a labor persisted although characteristics of prostitution policies had seemingly changed from the period of War Communism through New Economy Policy. For example, the Labor Clinics attempted to control venereal diseases and to rehabilitate former prostitutes when female unemployment rates induced more

demand for less coercive prostitution policies in the 1920s. At the beginning, the Labor Clinics simply provided medical cares for venereal diseases. The agents soon further developed their initial purpose. The Labor Clinics provided basic education classes combined with job training programs for the purpose of letting former prostitutes become qualified citizens. In the perspective of the agents, it was evident that prostitution is not productive labor, and thus that prostitutes should learn the principle of the new regime: the labor. This strategy was ineffective against non-negligible amounts of full-time prostitutes, albeit some meaningful achievements of the policies. Bolsheivik could not explain it.

The new regime that implemented both common hygienic education programs and public health systems has gradually conquered the venereal diseases. There remained a scarcity of resources as well as skyrocketing unemployment rates that impeded further materializing institutions for former prostitutes. In the era of the Soviet Industrialization Drive, the problem of poverty and unemployment which distressed whole women population, resolved gradually. It was also the coming of five-year plans for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when the attitude of authorities turned coercive again. This research tries to prove that the reason of this changes in prostitute policy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onsistency of the authorities'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rather than the difference. The Soviet authorities considered prostitutes as a 'reserve army' of women work force. Prostitution separated from venereal diseases at last, and constituted an issu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work force and labor market.

Keyword: Prostitution, Public Health, Abolitionism, Productive  
Labor, Labor Clinic, New Economy Policy

Student Number: 2009-20056